

모녀 간 친밀성 서사의 젠더 정치

- 오정희와 백수린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미선*

- 목 차 -

- I. 서론
- II. 친족의 모계 서사와 친밀성의 사회적 규약
- III. 모녀 관계의 재구획과 친밀성의 정치적 계쟁
- IV.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여성 간 친밀성의 서사화 유형과 그 담론적 양상에 대해 물을 때, 모녀 관계는 친족의 경계 내부에서 가장 빈번하게 호출되는 문제적 유형이다. 본고는 모녀 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젠더 심리학과 페미니스트 사회학의 젠더화된 삶과 동일시 역학에 대한 성찰을 경유하여, 모녀 간 친밀성을 모의하는 오정희와 백수린의 서사적 사례들이 보여주는 젠더 정치적 면모와 차이 지점들을 분석했다. 여기에서 모녀 간 친밀성의 양식은 어머니와 딸 사이의 상상적 동일시의 구도로 표출되며, 주로 오정희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의 사례에서 전경화되는 이러한 병리적 동일시는 ‘여성’과 ‘모성’에 대한 문화적 기대에 갖는 젠더화된 담론적 저변을 드러내는 마스터플롯으로서 형상화된다. 또한 백수린의 사례는 이러한 기존의 플롯들에 기반한 모녀 간 친밀성의 전략이 끝내 실패하게 되는 서사적 귀결을 보여줌과 동시에, 동일시의 역학으로 수렴되지 않는 친애의 친밀성 양식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모녀 간 친밀성의 플롯들을 정치적 계쟁에 부친다. 이는 젠더 정치의 오랜 화두이자 동시대적인 의제로 자리하는 모녀 관계에 있어서, 여성 간 친밀성이 어떻게 새롭게 상상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대안적 친밀성의 가능성 지대에 대한 탐색을 요청한다.

주제어 : 모녀 관계, 친밀성, 젠더 정치, 사회학적 여성, 계쟁, 여성 서사, 오정희, 백수린

I. 서론

본고는 한국여성소설사에서 여성 간 친밀성을 형상화하는 서사적 사례들 중 가장 빈번한 유형으로 자리하는 모녀 관계에 주목하여, 모녀 간 친밀성의 서사화에서 드러나는 관계 역학과 담론화 양상의 결들을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다. 주지하듯이 한국여성소설사의 계보에서 혈연공동체적 친족(kin)의 경계 내부의 공간은 여성 간 관계를 다루는 문학적 상상력의 주요 축으로 호명되어온 바 있다.¹⁾ 그리고 90년대를 필두로 ‘여성

1) 한국어문학의 여성주제어 사전에 따르면, 서사적 설정에서 여성 인물들의 관계맺음은 주로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형제자매, 딸, 아들, 친구, 이웃의 유형화된 범주로 분류된다. 최제남 외, 『한국어문학 여성주제어 사전: 인간 관계』, 보고사, 2013 참조.

성장소설'과 '반성장'의 모티프를 아우르는 비평적 우세종의 출현과 '여성문학'의 주제론적 반복²⁾은 일종의 모계적 서사를 이루는 두 여성, 즉 어머니와 딸의 주제 위치와 관계 양상을 친족의 내부 공간에서 더욱 중심적인 것으로 만든다. '여성 성장', '모성', '여성성', '여성적 글쓰기', '여성적 정체성' 등의 이 모든 "젠더 드라마"³⁾적 기표들에서 서사적 설정은 어머니-딸의 친족 관계(kin relationship)를 부른다.

기실 모녀 관계는 문학이나 특정 분과학문을 떠나서도 생물학으로의 환원이나 공/사 이분법의 담론적 실천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젠더 정치의 오랜 화두이기도 하다. 초도로우는 페미니스트 정신분석의 시각을 경유하여 젠더심리학을 주체의 원형적-내적 드라마에서 대상관계 이론(object-relation theory)으로 재정립한 기념비적 저작에서 모녀 관계에 대한 고전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널리 알려진 다른 전제는 여자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자연적으로 동일시한다는 것과 이것이 그들을 어머니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 왜, 어떻게 이런 동일시가 일어나는지는 모호하고 분석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⁴⁾ 초도로우의 이러한 질문은 클라인이 제기한 투사적 동일시 개념과 비온의 확장⁵⁾, 동일시와 내면화의 무의식적 과정에서의 젠더화⁶⁾, 여성 신체,

2) 이에 대한 논의는 김은하 외, '90년대 여성문학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여성과사회』 10, 한국여성연구소, 1995, 139~161쪽; 김영옥, '90년대 한국 '여성문학'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여성 작가 소설에 대한 담론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9, 상허학회, 2002, 93~120쪽; 심진경, '2000년대 여성문학과 여성성의 미학', 『여성과 문학의 탄생』, 자음과모음, 2015, 221~231쪽 참조.

3) 젠더 드라마는 성별과 구분되는 젠더의 사회화 과정과 젠더화된 삶(gendered lives) 전반에서 작동하는 문화적 기대, 배치, 역할, 행동 양식, 플롯을 포괄하는 술어이며, 어머니노릇(mothering)과 아버지노릇(fathering)을 포함해 모든 인간관계와 친밀감을 둘러싼 외적 드라마와 내적/심리적 드라마에 관여되어 있는 분석 범주로서의 젠더를 강조한다. 이는 페미니스트 사회학과 젠더 심리학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하다. Julia Wood, 한희정 옮김, 『젠더에 갇힌 삶』,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217~278쪽 참조.

4) Nancy Chodorow, 김민예숙·강문순 옮김, 『모성의 재생산』,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8, 147쪽.

5) Wilfred Bion, 홍준기 옮김, 「연결에 대한 공격」, 『제2의 사고』, 눈출판그룹, 2018; 최영민, 「투사적 동일시—심리적 의미와 치료적 활용」, 『정신분석』 20(2), 한국정신분석학회, 2009, 125~136쪽 참조.

6) Wood, 앞의 책, 220~223쪽 참조.

공감, 동일화로부터 발생하는 ‘지배 없는 지배’와 ‘어머니 죽이기’의 어려움⁷⁾, “환상, 내사, 투사, 양가감정, 갈등, 치환, 반전, 왜곡, 분열, 연합, 타협, 부정, 그리고 억압을 통해 매개⁸⁾되는 심리적 실재들, 친밀성 양식의 역사적 변천과 문화적 각본⁹⁾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질문과 대답을 촉발하는 화두로서, 모녀 관계에 주목하게 한다.

동시에 이러한 모녀 관계가 매우 실제적이고 동시대적인 문제로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K-도터’ 담론의 공감 장과 비혼/기혼 여성을 둘러싼 페미니즘 운동의 정치적 전선에서 모녀 관계는 다시금 젠더 정치적 근심거리이자 문제적 테제로 가시화된다.¹⁰⁾ 이러한 점들을 정리하면, 모녀 관계는 여성 간 관계성과 친밀성에 대한 서사담론들 뿐만 아니라 시간성을 막론한 문화적 담론에서 역시 핵심적인 것이자 동시에 가장 문제적인 항으로 지속됨으로써 일련의 주목을 요하는 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셈이다.

본고는 서사화된 모녀 관계의 양상을 ‘친밀성(kinship)’의 관점에서 풀어보고자 한다. 모녀 관계의 서사화 양상에 대해 기존의 비평 담론들은

7) Saito Tamaki, 김재원 옮김, 『엄마는 딸의 인생을 지배한다』, 꿈꾼문고, 2017, 19쪽 및 77~79쪽 참조.

8) Chodorow, 앞의 책, 85~86쪽.

9) 신경아, 『가족과 개인, 개인화』, 김혜경 외, 『가족과 친밀성의 사회학』, 다산출판사, 2014, 153쪽 참조.

10) K-도터(korean-daughter)란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 구도 내에서 어머니에 대해 딸이 갖게 되는 양가적인 정서(아들/딸에 대해 물질적·심리적 자원을 차등적으로 제공하고 성 역할의 공감 연대를 착취하는 어머니에 대한 딸의 분노, 애증, 연민, 책임감, 죄책감, 인정투쟁 등) 및 그러한 양가적 정서를 가진 딸을 의미하는 조어로, K-도터의 어머니에 대한 ‘짝사랑’이자 ‘원죄 의식’이라고 표현되는 이러한 감성 구조는 온라인에서 널리 공감 장을 이루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효(孝)에 기초한다기보다 여성이라는 주체 위치에서의 동일시 역할, 가부장적 가족 구도 내에서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라는 이중적 위치로 어머니를 이해하는 것, 모성에 대한 딸의 문화적 기대 등 여러 담론적 스케일의 중층적 복합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러한 K-도터 담론은 2015년도 이후 온라인 페미니즘 공론장에서 유력한 정치적 전선이자 갈등 지점으로 떠오르는 ‘비혼/기혼’ 의제에서 기혼 여성인 어머니와 비혼 여성인 딸 사이라는 여성 주체의 상이한 형식과 생애주기에서 비롯되는 여성 간 차이 및 갈등으로 인하여 더욱 문제적인 것이 된다.

“여성작가들의 텍스트를 읽으며 여성적 글쓰기의 고유성을 탐색하는 여성비평가들 … 가부장적 인습 내에서의 여성의 복합적인 위치, 심리의 언어화를 강조”¹¹⁾하고 “모성, 여성성”¹²⁾을 핵심어로 삼는 비평적 우세종 하에서 여성 간 친밀성 서사의 한 세부 주제론으로서 친족의 모계 서사를 독해해온 까닭에 몇 가지 문제적 논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특수한 비평적 관점에서 모녀 관계의 서사화 양상은 주로 여성성 장소설의 장르종을 통하여 포착되었는데, 그 까닭은 이들 담론이 ‘여성적 글쓰기’, ‘여성성’, ‘여성적 정체성’을 필두로 가부장제와 부권적 질서의 위치성 속에서 여성 주체의 내면과 불화를 드러내는 문체적 자질들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과 맞닿아 있다. 그런데 김은하 외(1995)¹³⁾에서도 논급되는 바와 같이, 여성 서사를 의미화하는 주요 개념으로 할당되었던 여성적 글쓰기, 여성성, 여성적 정체성 담론의 보편화된 시각과 논리를 의문에 부칠 필요가 있다. 성차의 사회학을 본질화하는 담론적 곤경의 미끄러짐과 이성애규범성의 작동이라는 위험성이 그 담론적 토대에서 노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평적 시각 하에서는 모녀 관계의 서사화 양상에 대해 질문할 때 이를 여성 주체의 내면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관점과 탈사회적 맥락으로 환원하여 가정된 ‘원형적 장면’으로 소급하게끔 하는 문제적 지점을 발생시키고 이에 따라 다양한 서사화의 방식을 억압·저항의 초평면에서 균질화하게 될 가능성이 다분한 까닭이다.¹⁴⁾ 이와 같은 구도 하에서는 어머니와 딸 관계성에서의 친밀성의 상이한 벡터들은 어머니와 딸의 주체 위치와 관계 양상이 고정되는 까닭

11) 김영옥, 앞의 글, 104쪽.

12) 위의 글, 109쪽.

13) 김은하, 앞의 글 참조.

14) 버틀러는 1997년 출판된 『권력의 정신적 삶』의 「우울증적 젠더/거부된 동일화」에서 젠더의 구성과 젠더 수행성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논리 및 사변적 시나리오를 전개하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해석적 논리 구조가 갖는 환원주의적 면모 및 실체화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한 바 있다. Judith P. Butler, 강경덕·김세서리아 옮김, 『권력의 정신적 삶』, 그린비, 2019, 200쪽 및 213쪽 참조.

에 집단으로 등질화되어 그 관계 내부의 역학들과 서사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를 의미화하지 못할 위험성이 다분하기에 문제적이다. 부권에 대한 거부나 저항 그리고 이러한 논리가 수반하는 방법론의 억압-저항 도식이 ‘여성’을 추상적인 저항의 자리에 놓는 것과는 달리, 젠더 정치는 여성들 간 관계맺음의 실제들과 그 심리적 역동들 사이에서도 항시적으로 작동하면서 젠더화된 삶의 현상들을 가로지른다.¹⁵⁾

라폴레트가 지적하는 것처럼 친밀감(intimacy)은 가까움(closeness)이라는 공간적 거리 감각과 연관되지만, 친밀감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것이기에 가까운 관계가 어떤 특정 형식의 친밀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친족(적) 친밀감(kin intimacy)이 자연적인 본능이나 성향이라는 믿음 또한 친밀감의 성취적 측면과 비자족적 측면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없다.¹⁶⁾ 이러한 방식으로 친밀성(kinship)과 친밀감(intimacy) 사이의 관습적인 연결이 미끄러진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본고는 모녀 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접근 또한 가능해진다고 본다. 앞서 논급한 초도로우의 모녀 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동일시’에 대한 질문은 친족이라는 문화적 규격, 여성 신체, 젠더 주체로서의 위치, 상호작용의 시간성 등 여러 가지의 담론적 척도(scale)들의 중층적 작용에 대한 질문과 함께, ‘왜’ 그리고 ‘어떻게’ ‘어떤 강도로’ 동일시하고 연결감을 통해 친밀감의 관계적 공간을 만드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능케 한다.

본고는 이러한 친족(kin)과 친밀감(intimacy) 사이의 미끄러짐 속에서 생성되는 모녀 관계의 서사적 형상들을 모녀 간 친밀성(kinship) 서사의

15) 제이콥스는 클라인과 이리가라이를 위시한 모녀 관계 모델에 대한 페미니스트 정신분석학의 문서들을 이론적인 것이라기보다 서술적인 것으로서 비판적으로 다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녀 관계 이론의 구축에 있어서의 추상화와 패러다임의 재반복을 경계할 것을 요청한다. Amber Jacobs, “The Potential of Theory: Melanie Klein, Luce Irigaray, and the Mother-Daughter Relationship”, *Hypatia: A Journal of Feminist Philosophy*, 22(3), 2007, pp.176~177-p.185-pp.190~191.

16) Hugh LaFollette, “Kinship and Intimacy”, *Etikk I Praksis—Nordic Journal of Applied Ethics*, 11(1), Trondheim, 2017, pp.33~40.

주제론적 접근을 통해 탐색해볼 것이다. 여성 간 친밀성 서사의 토대적 자리에 모녀 관계가 있으며 이것이 여성 주체를 의미화하는 여성 서사의 중요한 주제론적 축으로서 계속적으로 생산되는 논제라면, 이는 여성 간 관계성과 여성 주체의 존재론적 조건·자리·배치성을 탐색하는 여성 서사 고유의 문제의식과 연루되는 문학적 상상력의 다면과 차이를 읽어낼 수 있는 단서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본고는 기존의 모녀 관계 형상화의 원형적 장면으로 평가받아온 오정희의 서사 중 가장 명시적인 방식으로 모녀 관계를 제재, 구성, 인물 형상, 담화와 주제 및 의미망 층위에 이르기까지 초점으로 삼고 있는 「목련초」¹⁷⁾를 누빔점으로 삼되 이와 매우 상이한 서사적 상상력을 보여주는 백수린의 논쟁적인 모녀 서사 『친애하고, 친애하는』¹⁸⁾을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모녀 관계를 그리는 문학적 상상력의 지형 및 여기에서 드러나는 모녀 간 친밀성의 사회적 규약과 정치적 계쟁의 서사화된 지점들을 의미화해볼 것이다.

II. 친족의 모계 서사와 친밀성의 사회적 규약

오정희의 「목련초」는 여성 간 친밀성과 여성 간 관계성의 의미화 양상에서 모녀 관계를 해석해온 기존의 비평적 논점들을 핵심적으로 보충하는 원형적 상상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소설이다. 이 소설은 기혼 여성인 ‘나’가 남편의 불륜으로 파탄이 난 결혼생활로 인해 서사적 현재에서 어머니와의 친밀성의 극단화된 형태인 내적인 ‘동일시’의 구도로 자기 자신을 설정하고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서술한다. 이러

17) 오정희, 「목련초」, 『불의 강』, 문학과학지성사, 2017. 이하 본문 인용 시 제목과 쪽수만 병기함.

18) 백수린, 『친애하고, 친애하는』, 현대문학, 2019.

한 과정에서 딸인 ‘나’와 ‘나’의 어머니의 관계는 “만다라”(『목련초』, 125쪽)로 함축되는 여성의 주체 위치에 대한 원형적 장면으로 합일된다. 아래의 인용문을 보자.

가서 애나 보라구? 남편도 내게 곧잘 그런 말을 하곤 했다. 그 말을 들으면 나는 낮빛이 새파랗게 질리곤 했으나 이젠 분노나 모멸감으로 가슴이 후들거리는 일도 없이 내게 볼 아이나 있으면 이려고 다니겠어? 라고 받아넘길 만큼 뻔뻔해졌다. 하기사 내게 이젠 그런 따위의 말을 하는 사람도 없긴 했다. 내가 알고 지내는 주위의 사람들은 한결 같이 내 앞에서 남편이나 아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크나큰 실례로 여기고 있었다. …(중략)… 가서 애나 보라구? 나는 한숨을 쉬었다. 한수 씨는 내가 딸아이를 시가에 떼어 둔 채 남편과 별거중인 사실을 알고 있을까를 생각했다.(『목련초』, 128~129쪽)

남편과는 이렇다할 해결도, 해결책도 갖지 못한 채 별거를 하고 있었고 그 이후 내게 생긴 것이라곤 끝도 한도 없는 절망적인 잠과, 술을 먹으면 나비아 나비아 청산 가자를 부르고, 딸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울곤 한다는 버릇뿐이었다. 나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중략)…

아마 한수 씨도 그 버릇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아니 내 내부에 깊숙이 도사린, 목련이 피는 밤마다 칭칭이 감겨드는 시나위 가락도 알고 있을지 몰랐다. 그러기에 그가 가끔 내게 비웃쩍거리며 목련을 그리시오, 만다라를 그리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나 아닌지.(『목련초』, 129~130쪽)

위 서술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소설의 서사적 현재에서 ‘나’는 남편과 별거 상태이며, 아이를 둔 중년의 기혼 여성 인물로 설정되어 있

다. 그런데 소설의 문두에서 ‘나’의 이러한 처지가 선행적으로 제시되는 반면 ‘나’의 어머니에 대한 서술은 유보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설의 후행부에서 제시되는 ‘나’의 어머니에 대한 서술에서, 어머니는 ‘나’의 아버지와 결혼하였으나 출산 후유증으로 인해 앓은뱅이가 된 뒤 몸에 신이 실려 무당이 되는 삶으로 설정된다. ‘나’의 어머니는 앓은뱅이 입과 동시에 무당 노릇을 하게 되어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동네에 둔 채 집을 나가 ‘나’와 함께 다른 여자와 다시금 살림을 차리게 된다. 그리고 ‘나’의 회상적 서술을 통하여 제시되는 ‘나’의 어머니의 최후는 앓은뱅이인 까닭에 화재를 피하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게 되는 이미지로서 서술된다. 서술적 시간 역전을 통하여 회상으로서 매개되는 이러한 ‘나’의 유년의 과거 시퀀스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함께 죽은 어머니를 버리고 동네에서 멀리 도망치게 되는 장면에 대한 서술로 완성된다.

그리고 서사적 현재에 이르기 전까지 ‘나’는 어머니와 동일하게 결혼을 하고 딸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것으로 설정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지점은, 이러한 시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나’와 ‘나’의 어머니 사이의 관계적 연결이 서사 내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즉 문제상황이 발생하기 전의 시간적 좌표인 서사적 현재의 전 시점에서 ‘나’는 모녀 관계의 친밀성에 있어서 어떤 특정 종류 및 강도적 연결로도 ‘나’와 ‘어머니’ 사이의 관계성을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나도 시앓을 본 다른 여자들이 하듯 그녀의 집에 가서 요강을 들어 거울을 부수고 이불을 갈같이 찢고 머리채를 휘두르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그러는 대신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밤마다 어두운 길목에서 그를 기다렸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으로 팔랑개비를 돌리며 새벽녘까지

서 있곤 했다. 그리고 그러한 새벽 어머니는 씻긴 듯 신선한 모습으로
내게 찾아오는 것이었다.(『목련초』, 132쪽)

아버지는 잘 있나? 내가 가면 어머니는 먹을 것을 꺼내주며 늘 물
었다. 나는 먹기에 바빠 대답할 겨를이 없었다. 그러면 어머니는 한숨
을 쉬고 성냥통을 끌어당겨 따악 소리를 내어 호기롭게 불을 붙이며
나비야 나비야 청산 가자, 호랑나비 너도 가자, 구시월 새 단풍이 되서
리 맞아 낙엽 저 우리네 초로인생 공수래공수거라— 어깨를 추석이며
홍열대는 것이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새벽마다 나는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
리고 어머니가 뜨겁고 슬프고 한스러운 감정을 나비야 나비야 청산 가
자로 체념해 버리듯 나도 역시 어느새 어머니의 흉내를 내며 질식할
듯 차갑고 깨끗한 새벽의 공기를 피해 어두운 골목을 돌아 집으로 돌
아오곤 했던 것이다.(『목련초』, 134쪽)

‘나’는 남편의 불륜과 결혼생활의 파탄을 통해 집을 떠나게 되는 서사
적 현재에서 비로소 ‘나’와 ‘나’의 어머니와의 관계성을 호명하기 시작한
다. 위의 첫 번째 인용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남편이 돌
아오지 않는 밤마다 남편을 기다리며, 이러한 새벽마다 이미 오래 전 죽
어 없는 어머니가 ‘씻긴 듯 신선한 모습으로 내게 찾아오는’ 경험을 하
는 것이다. 이렇듯 ‘나’를 어머니와의 관계, 모녀 관계의 친밀성과 동일
성의 구도로 소환하는 것은 남편과의 실패한 결혼생활이다.

‘나’와 ‘어머니’ 사이의 관계성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것,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서사적 설정의 동일성 속에
서 촉발된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이러한 서사적 사건 상의 동일성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는 ‘나’와 ‘나’의 어머니 사이의

정서적 반응의 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두 번째 인용문에서 명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초점화된 해석은 어머니의 노래를 ‘뜨겁고 슬프고 한스러운 감정’의 체념적 가락으로, 그리하여 ‘나’와 동일시될 수 있는 정서적 결로 조율한다. 그리고 ‘나’는 “여보 사랑하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요”(『목련초』, 131쪽)라는 남편의 편지와 함께 별거 이후 아프리카 오지로 떠난 남편의 귀국과 재결합에 대한 요청을 앞둔 서사적 현재에서, 이러한 정서적 조율을 바탕으로 언젠가 남편과 함께 보았던 「나비부인」의 “영예로운 삶이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리”(『목련초』, 135쪽)라는 대사와 함께 남편이 떠나버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불명예스러워졌던 어머니의 죽음을 떠올리게 된다.

간신히 마루로 나온 어머니가 텃돌 아래로 구르다고 생각한 순간 어머니는 벌떡 일어났다. 굉장히 큰 키였다. 이제 불은 저고리 소매에 붙어 원색의 휘장처럼 펄럭이고 있었다. 어머니는 불꽃나무였다. 그리고 불을 끄기 위해,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 달려 나오려 하는 듯했으나 선 자리에서 그 긴 두 팔을 휘둘러대며 춤추듯 경중경중 뛰기만 할 뿐이었다. 마치 굿판에서처럼 어머니는 거대한 불꽃나무가 되어 타고 있었다. 나는 도대체 달려들 엄두를 못 내고 허둥대기만 하는 사람들 틈에 숨어 서서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귀신이란 귀신은 모조리 불러내어 일생 단 한번의 성대한 굿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넋이야, 넋이로구나. 녹양십산 첫 넋이여, 넋을랑 넋반에 담고 신의 신첸 관에 담아 올려다보니 만학천봉, 내려다보니 백사지라.

어허허, 왔소 내가 왔소. 만신의 입을 빌고 몸을 빌어 내가 왔소, 어허허, 생전에 이루지 못하고 황천객 되어 왔소.

나는 그때 분명히 굿거리장단에 맞춘 어머니의 구성진 지노귀 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쓰러졌다. 쓰러져서도 어머니의 몸은 생솔가지에 붙붙듯 오래오래 기름진 불꽃으로 타고 있었고 그 위에 대들보가 흡사 한 마리의 구렁이처럼 무겁게 눌러 내렸다.(『목련초』, 142~143쪽)

풀에 뒤덮인, 풀마저 썩어 한갓 먼지로 풀풀 날릴 때까지도 백골이 못 된 어머니의 죄 많은 뼈에서 밤마다 피어나는 흰 목련들. 그러나 밤마다 끊임없이 토해 내는 꽃송이들이 훨훨 날아 천공을 뒤덮어도 어머니는 백골이 되지 못했다.(『목련초』, 126쪽)

위의 시퀀스에서 어머니의 죽음은 분명 화재로 인한 사고사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어서 현재화되는 과거의 시간성과 어머니의 죽음이 갖는 이미지 및 그 죽음의 의미는 ‘나’와 ‘어머니’의 친밀성 지대를 가로지르는 동일시의 역학에 의해 새롭게 호명된다. 이러한 매개된 기억에서 현재화되는 과거의 시간성과 어머니의 죽음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와의 관계성에 대한 상상적 배치 속에서 재매개됨으로써 「나비부인」의 대사처럼 ‘차라리 죽음’ 선택했던 그러한 죽음으로 의미화되는 것이다. 어머니는 ‘나’에게 여성적 한(恨)의 수많은 귀신들이 만신의 입과 몸을 빌리는 굿판이자, 거대한 불꽃나무가 되어 자신의 몸을 태움에도 결코 육탈하지 못하는 승화될 수 없는 뼈의 정신적 이미지로 전이된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나’에게 있어서 밤마다 “주술적인 초혼”(『목련초』, 126쪽)의 목련으로 피어나는 심상적 발현체로 의미화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렇듯 목련의 심상을 통하여 ‘나’에게 있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현재화되는 어머니는 다시 시작하자는 남편의 편지에 대해 그리고 삼 년 전 집을 떠나면서 동일하게 ‘나’가 던진 “그러나 언제나 시작이란 없는 것이예요”(『목련초』, 131~132쪽)라는 서술적 표현과 결합하면서,

모녀 관계의 관계 역학과 친밀성의 지대에서 ‘나’와 ‘어머니’ 사이의 동일시로부터 연역되어 끝내 시작도 끝도 없는 온전한 동일성의 구도로 밀착됨으로써 완성된다.

동시에 이 소설에서 특히 흥미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지점은 어머니와의 약한 강도적 친밀성을 넘어서 내적인 동일성의 구도로 ‘나’를 소환하게 되는 이러한 삶의 동일성이 단순히 우연적인 것이거나 특정한 사건의 일치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소설은 이러한 딸인 ‘나’의 삶과 ‘나’의 어머니와의 삶의 동일성에서 더 나아가 이를 어떤 ‘핏줄’에 의한 계승이자 운명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시작이란 없는’ 이러한 반복으로서의 만다라의 이미지는 ‘나’와 ‘어머니’를 넘어 여성의 주체 위치에 대한 원형적 장면, 여성적 한의 차이 없는 반복으로서 여성의 운명이자 존재론적 위기의 고유한 플랫폼을 통해 젠더적 트라우마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적인 증상을 함축하게 된다.

두텁게 덮었던 풀들도 썩고 마르고, 먼지처럼 날아 흐트러져 버렸는데도 굳게굳게 송진처럼 살점이 영건 빠는 시커멓기만 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것은 하얗게 빛을 내고 있었다. 희푸르게 파작 파작 타오르는 그것은 흡사 꽃이었다. 밤으로 마디마디 흰 꽃을 피워 내고 마침내 하나의 커다란 꽃으로 피어나는 어머니의 빠는 아침이 되면, 꽃을 다 피워 내어 껍질만 남은 고목의 등걸처럼 더욱 시커멓게 썩어 있었다.(『목련초』, 143쪽)

내 속에는 어머니를 버리고 달아나던 날 밤의 자옥한 어둠이 금류가 되어 밀려 들어오고 그 너머 어디선가에 흰 목련들이 소리를 내며 터지고 있었다. 나를 이윽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함몰시키고야 말 꽃

들이.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밤의 어지러운 꿈자리에서, 그리고 새벽, 세숫물에 손을 담그다가 선풍한 느낌에 진저리를 치며 아아, 나는 여지껏 느낌으로만 살아왔구나, 곤충이 촉각으로 살 듯 나는 그저 느낌으로만 살아왔구나, 라는 것이 날카로운 정으로 골을 쪼개듯 쨍하니 선명한 의식으로 다가들 때마다, 무언가 저질러 버리고 싶다는, 풀무처럼 단내를 풍기며 뜨겁게 달아오르는 온갖 타락에 대한 열망, 죄악에 대한 열망에 시달릴 때마다 어머니의 뺨에서 피어나던 목련은 어둡고 민감하게 스멀대며 살아나곤 하였다. …(중략)…

그러나 아무리 내가 밤마다 끝없이 절망과 비상과 추락을 거듭하여 거대한 잠 속에 빠져든다 해도 내 속에서 피어나고 있는 목련을 죽일 수는 없을 것이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밤마다, 남편의 지문이 화인처럼 묻어나는 곳곳에서 피어나던 목련. 차라리 수천 수만 송이의 만다라로 흐트러져 피어나던 그것을 그릴 수는 없을 것이다.(『목련초』, 145~147쪽)

이러한 젠더화된 트라우마로부터 조형되는 ‘모계 서사’의 플롯은 대체적으로 다음의 분석과 해석을 가능케 할 것이다: “나”는 어머니처럼 살지는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결국 어머니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내면에 또아리 틀고 있는 자신의 또다른 얼굴을 인정하게 된다. 어머니의 이러한 한 많은 삶이 일종의 핏줄처럼 ‘나’에게도 이어지려고 하자, ‘나’는 집을 떠난다. 집을 떠나 “주술적인 영혼의 꽃” 목련을 그리고자 한다. 목련이란 ‘나’에게 “어머니의 뺨골에서 피어나던 영혼”이자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밤마다, 남편의 지문이 화인처럼 묻어나는 곳곳에서 피어나던” 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목련 그림은 일종의 “만다라”로서 한의 승화를 의미하지만, ‘나’는 좀체 목련을 그리지 못한다. 결국 ‘나’는 목련을 그리는 대신, 자신 안에 있는 파괴적인

욕망을 인정하게 된다”¹⁹⁾는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오정희의 소설적 계열체들에서 주로 타락의 심상들과 연결되어 있는 매춘, 도둑질, 탐식 등과 연결되어 「목련초」의 서사 말미에서 ‘나’의 암시된 ‘죄악에 대한 열망’과 ‘무언가 저질러버리고 싶다’는 충동은 이 소설에서는 기존의 계열체들과 의미론적으로 묶이지 않는 차이를 드러내기도 한다. 양윤의가 분석한 바와 같이 「저녁의 게임」을 위시하여 오정희의 소설들에서 상징되는 모녀 관계가 타락의 심상들에 대한 ‘나’의 실현을 통하여 ‘나’가 ‘어머니’와 하나로 묶임으로써 추방된 어머니라는 장소의 재생산으로서의 여성 주체의 신체라는 장소를 통해 아버지의 장소 자체를 내부에서 무너뜨린다는 해석적 논리²⁰⁾ 및 억압-저항의 상징적 구도로 이 소설을 연역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 소설은 모녀 간 친밀성에 대한 일종의 문화적 마스터플롯²¹⁾이자 여성성장소설의 한 형상으로서 모녀 관계의 원형적 장면을 매개함과 동시에 형상화하는 서사적 상상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을 성장소설로 의미화할 수 있는 까닭은 이 소설이 단지 시기적이고 유년기의 성장에 국한된 것으로서의 성장소설을 넘어서 ‘나’를 기혼 중년 여성으로 설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소설이 매개하는 서사적 사건을 통하여 여성 주체로서의 ‘나’가 삶을 이해하는 방식이 통어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의 내적 시간인 발견과 탐색”²²⁾이라는 측면에서 「목

19) 이정희,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탈영토화 전략」, 『여성문학연구』 4, 한국여성문학학회, 2000, 302쪽.

20) 양윤의, 「여성과 토폴로지」, 소영현 외, 『문학은 위험하다』, 민음사, 2019, 47~67쪽 참조. 이는 대체적으로 오정희의 소설을 해석하는 전형적 논리이기도 하다.

21) 마스터플롯은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며 특정한 문화적 토대에 위치한 사람들의 근저에 있는 가치, 희망 그리고 공포에 대해서 말하는 일종의 원형적 스토리를 말한다. 문화적 마스터플롯은 스테레오타입의 인물 유형과 장르를 포괄하며, 사람들은 특정한 마스터플롯을 통해 세계관을 형성하거나 해제한다. 이러한 문화적 마스터플롯은 특정 문화에 존재하는 지배적인 마스터플롯을 훼손하거나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대항서사와 경합 및 교섭한다. H. Porter Abbott, 우찬재·이소연·박상익·공성수 옮김,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99~105쪽 및 357~359쪽 참조.

22) 김혜영, 「오정희 소설의 성장 수사학」, 『현대소설연구』 27,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362쪽. 성장소설은 그 장르종의 태생으로서 교양소설과 동일한 것으로 연역되지 않는다. 특히 오정희 소설

런초』 전체는 ‘나’가 ‘나’의 어머니와의 혈연적 구도이자 원형적 장면에서 ‘여성’이라는 위치성 속에서 ‘만다라’라는 대칭적이고 동일성의 끊임없는 반복으로 이미지화되는 표상을 통하여 밀착되게 되는 자기 이해이자 모녀 관계에 대한 이해의 구도를 서사화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모녀 관계의 친밀성은 약속된 것으로, 동시에 이러한 친밀성의 구성은 젠더화된 여성 주체의 위치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규약의 동일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²³⁾

Ⅲ. 모녀 관계의 재구획과 친밀성의 정치적 계쟁

백수린의 『친애하고, 친애하는』은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나’라는 세 여성 사이의 ‘모녀 관계’를 겹쳐놓음으로써 여성 삼대(三代)의 관계 양상을 서사화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 소설은 오정희의 「목련초」가 모녀 간 친밀성의 지대를 서사화하는 방식과 대별됨과 동시에 병치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둘째로, 이 소설은 여성 삼대의 축과 중첩된 모녀 관계의 서사화를 통하여 친밀성의 역사 속에 개입되는 모녀 관계의 불가능한 동일시에 대한 문제적인 논제를 제출한다.

에서는 전형적인 성장소설의 장르종으로 해석되는 사례들에서도 유년의 여성 인물이 등장함과 동시에 「옛우물」이나 「목련초」 등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상적 자아와 회고담의 서술자 초점화 등을 통하여 매개 구도의 다중적 모의가 진경화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오정희의 여성성장소설로서 빈번하게 호명되는 「유년의 딸」과 「중국어 거리」 및 「완구점 여인」과 같은 명시적인 유년의 여성 인물이 제시되는 서사적 사례들에서도 서술적 매개 구도와 초점화 양상에 있어서는 ‘회상적 자아’로 의미화되는 성년의 여성 서술자와 초점화자에 대한 단서가 계속해서 발견된다는 점은 오정희의 소설적 계열체들에서 여성/성장의 주제론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문제적하게 한다.

23) 이러한 측면에서 엄지희가 지적한 여성 성장 담론이 가부장제에 대한 피상적인 저항의 논리로 해석되는 것에 대한 비판(엄지희, 「현대 여성작가 자매소설 연구」, 『상허학보』 48, 상허학회, 2016, 416쪽)처럼, 오정희 소설을 젠더수행성과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으로 의미화하는 논지들에 대해 다소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는 앞서 첫 번째로 논급한 이러한 문화적 마스터플롯에 대한 진지한 반례로서 서사적 상상력의 차이 지점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앞 장에서 논급한 것처럼 오정희의 『목련초』를 필두로 여성성장소설의 계보에서 모녀 관계의 형상화 방식이 정신분석이나 탈사회적 맥락으로 환원될 ‘원형적 장면’을 통하여 모녀 관계의 친밀성을 고정적으로 제시하는 서사적 상상력을 보여준다면, 백수린의 『친애하고, 친애하는』에서 제시되는 중층적 모녀 관계의 역학은 그와는 매우 상이한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한다. 관건은 여러 가지 강도적 연결과 공간적 거리 감각을 통하여 구축되고 실현되는 잠재적 가능성 지대로서의 친밀성이라는 관계적 공간이 어떻게 동일시를 통한 차이 없는 반복의 동일성으로서 이해되는 것이 가능해지는가에 대해 이 소설이 던지는 물음을 해석하는 것에 있다. 『친애하고, 친애하는』에서 모녀 간 친밀성의 논제는 모녀 관계에서 빚어지는 친밀성의 원천과 친밀성의 방식 양자의 등질적 양상에서, 사회적 여성(들)의 결코 동일시될 수 없는 모녀 관계에서의 ‘차이들’로 분화된다. 아래의 인용문을 보자.

할머니의 잔기침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잘못된 상태의 신호라는 사실을 그 무렵 나는 어떻게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을까? 할머니를 그토록 사랑했는데. 불면증에 시달리던 그 무렵의 나는 알 수 없는 조바심에 항상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어린 시절 내가 발목을 빼면 노른자와 밀가루를 섞어 만든 반죽을 부은 자리에 붙여주고, 감기에 걸리면 파뿌리와 생강을 달여주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래도 낮지 않으면 병원에 데려간 후 병원에서 지어준 가루약을 먹기 좋게 물에 개어주던 사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가끔씩 나의 아이가 아플 때, 열이 40도 가까이 오른 아이의 이마를 차가운 물수건으로 닦아주거나 체한 아이의 배를 오랫동안 문지를 때, 거짓말

처럼 할머니가 떠오르는 순간이 있었다. 할머니가 그렇게 갑자기 생각 나는 밤이면 나는 이제, 내가 그러했듯이 할머니 역시 할머니의 한계 안에서 나를 사랑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니 내가 그때 할머니의 상태를 조금도 눈치 채지 못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나이를 먹었다. 하지만 어쩌다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역에서 환승하기 위해 계단을 바빠 올라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뒤통수를 보거나 8차선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바뀌어 내 쪽을 향해 걸어오는 인파를 보다가 가끔씩, 나는 지구상의 이토록 많은 사람 중 누구도 충분히 사랑할 줄 모르는 인간인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대체 어떤 의미인 걸까?(『친애하고, 친애하는』, 25~26쪽)

이 소설의 서사적 설정에서 가장 문제적인 것은 ‘나’와 ‘나의 어머니’와의 관계성에 있다. ‘나’는 “엄마를 실망시키는 사람”(『친애하고, 친애하는』, 48쪽)이다. 이 소설 전체의 서사적 사건은 이미 할머니의 죽음을 겪고 아이를 출산하여 키우는 기혼 여성인 ‘나’의 회상적 서술을 통하여 과거의 사건들이 서술되는 방식으로 매개된다. 이러한 서술적 매개 구도를 바탕으로 이 소설은 할머니와 ‘나’의 관계를 통하여 할머니와 ‘나의 어머니’의 모녀 관계를 알아가게 되고, 동시에 그럼으로써 문제상황으로 자리했던 ‘나’와 ‘나의 어머니’와의 모녀 관계와 불가능한 동일시적 친밀성의 구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원망에서 이해로의 과정을 밟아가는 인식적 추이 변화를 따른다. 이 소설의 파라텍스트(paratext)이기도 한 ‘친애’는 위 인용문에서 제기되는 질문, 즉 ‘한계 안에서 사랑했을 것이라는’ 이해가능성과 ‘우리가 타인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묻는 이해불가능성 사이에서 진동하면서 ‘나’의 ‘어머니’에 대

한 친밀성의 구성적 및 의미적 변화의 행로를 포괄하는 해석적 기표로서 작동한다.

강이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은 서울의 북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집과 할머니 집의 중간 지점인 신촌이나 홍대 입구 언저리에서 주말에 만나 영화를 보거나 외식을 했고, 수제 맥주로 유명한 가게를 찾아다니던 후에는 근처의 모텔에 갔다. 어쩌다 그의 부모님과 여동생이 외출하는 주말이면 그의 집에 가기도 했다. 강의 집은 30평대 초반의 아파트로, 그리 넓지 않은 거실에 놓인 원목 수납장과 티브이장 위에는 켈트와 뜨개질로 만든 직물이 덮여 있었다. 누군가 정성껏 돌보고 일군 정원처럼 아늑한 분위기. 강의 집은 내가 어린 시절 친구네 집에 놀러 갈 때마다 부러워했던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동경해온 지극히 평범한 가정, 그러니까 회사원 아버지와 가정주부 어머니 사이에 아들딸로 구성된 4인 가족의 장남인 강. 강은 내가 울면 어쩔 줄 모르겠다는 얼굴로 나를 끌어안아주던 사람이고, 지하철에서 노인을 보면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반드시 자리를 양보하는 그런 사람이고, 자기가 맡은 일이 무엇이든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당시 채권관리팀에 있던 강은 내게 그가 직장에서 매일 듣는 신용불량자들의 사연에 대해서 이따금씩 이야기하곤 했는데, 그의 말은 대체로 평범한 일상의 고마움이라든지, 정상적인 삶의 가치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끝이 났다. 내가 강과 두 번이나 연애를 하게 된 것은 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상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꽤 오랜 시간 생각해왔다.(『친애하고, 친애하는』, 44~46쪽)

위 인용문은 ‘나’의 회상적 자아가 서사적 현재에서 ‘나’의 남편이 된

‘강’에게 끌렸던 이유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강’은 회사원 아버지와 가정주부 어머니 사이에 아들딸로 구성된 전형적인 4인의 핵가족이자 서울의 중산층으로서의 전형적인 형상으로 묘사된다. ‘나’가 이러한 ‘강’을 고른 것은 ‘정상적인 삶의 가치’ 및 ‘정상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인 것으로 서술된다. 그리고 이는 물론 ‘나’와 ‘나’의 어머니 사이의 문제적 관계 속에서 비롯되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소설의 서사적 설정에서 핵심적인 갈등 양상은 ‘나’가 ‘나’의 어머니에게 기대하는 어머니됨(motherhood)에 대한 각본과 함께 그 어머니 노릇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수 없는 어머니답지 않은 어머니로서의 ‘나’의 실제하는 어머니 사이의 간극에서 오기 때문이다.

‘나’에 의해 서술되는 ‘나’의 어머니는 유학길에 오르기 위해 필요했던 결혼을 하고, 미국 비자가 나오길 기다리던 와중에 ‘나’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며, 갓 태어난 ‘나’를 ‘나’의 외할머니에게 맡겨두고 떠난다. 그리고 “그러니까 역시, 엄마 인생에는 엄마의 공부가 가장 중요했던 거네요”(『친애하고, 친애하는』, 79쪽)라는 ‘나’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친애하고, 친애하는』, 77쪽) 해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엄마가 그곳의 일상을 이야기하며 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었다든지, 외로웠다는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해주길 바랐다”(『친애하고, 친애하는』, 77쪽)는 서술은 ‘나’의 심적 결핍을 드러냄과 동시에 ‘나’가 ‘강’을 남편으로 선택한 이유를 이해하게 한다.

“내가 누리보지 못한 모성”(『친애하고, 친애하는』, 119쪽)이라는 서술에서 명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나’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과는 정반대로 가부장적 가족 구도 내에서 전업주부로서 자식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어머니됨에 대한 문화적 기대감을 투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나’가 ‘나’의 어머니와의 관계성을 ‘정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나’의 어머니를 그 ‘비정상’의 원인

으로서 배치하는 와중에, ‘강’과의 관계에서 혼전임신을 하게 되는 서사적 사건에서 이러한 ‘나’와 ‘나’의 어머니 사이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내가 두 번째 불렀을 때에야 비로소 엄마가 나를 돌아다보았다. 엄마가 화를 삭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엄마는 울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엄마의 곁에 가 앉으며 말했다. 엄마가 우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엄마의 눈물을 보자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튀어나왔다. 어쩌면 내가 다시 한 번 엄마를 실망시켰기 때문에, …(중략)…

“엄마, 엄마도요, 내가 생겼을 때, 이런 마음이었어요?”

나는 엄마가 무슨 말이든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보면 엄마가 나를 낳았을 때도 엄마는 학업 중이었고, 무엇보다 엄마는 아이를 낳고도 엄마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엄마가 나를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때 내게 도대체 왜 그런 터무니없는 기대가 생겨났는지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한번 생겨난 그런 기대는 모두들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엄마라면, 아기를 낳고도 바로 유학을 갔던 엄마라면 내가 아기를 낳더라도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고, 졸업을 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꿈을 꾸고, 계획했던 목표를 이룰 수 있으리라는 것을 믿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형태를 바꿨다. 그때의 나는 이 뜻밖의 임신이 그때까지 엄마에게 서운했던 것들, 나와 엄마를 모두 외롭게 만들었던 우리 사이의 간극을 치유해 주기 위해 우리에게 벌어진 사건일지도 모른다고까지 기꺼이 생각하고 싶었다. 엄마와 나에게 생긴 최초의 연결 고리.(『친애하고, 친애하는』, 108~110쪽, 인용자 밑줄)

나는 엄마가 제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인생은 이것으로 끝장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랐다. 진짜 자신의 자아실현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실수로 아기를 갖는 그런 멍청한 일을 저질렀을 리 없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중략)…

“아니야. 무리해 그럴 거 없어. 결혼해 아이만 키우는 것도 좋은 삶이지.”(『친애하고, 친애하는』, 110~111쪽)

‘나’는 어머니됨에 대한 문화적 기대감을 투사하여 모녀 간 친밀성에 대해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그러한 각본을 ‘나’의 어머니에게 요구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좌절당하는 경험에 지배당하는 심리적 드라마 속에서 교착된 상태로 존재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모녀 관계를 상상하는 ‘나’의 친밀성에 대한 요구에서 ‘나’는 여전히 어머니에게(만) 돌봄을 요구하는 어린아이의 시점에 멈춰있는 것이다. ‘나’는 서사적 매개 구도 속 서술자인 중년 여성이 된 ‘나’의 회고적 타임라인에서도 이미 성인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기에서 앞서 인용한 ‘내가 누려보지 못한 모성’은 교착 상태 속에서 결코 충족되거나 해결될 수 없다.

그리하여 ‘나’는 위의 인용문으로 제시된 서사적 상황에서 ‘나’의 임신을 바탕으로 ‘나’의 어머니와의 새로운 친밀성의 지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전회를 꾀한다. ‘엄마와 나에게 생긴 최초의 연결 고리’라는 서술적 표현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이 기대감은 물론 결혼과 임신 및 출산이라는 여성의 전형적인 생애 주기 설계에서 비롯되는 여성 주체의 ‘상상적’ 동일성에 기초하는 것이다. 이렇듯 ‘나’는 임신이라는 경험이 ‘나’와 ‘나’의 어머니 사이의 친밀성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만, 마지막 인용문 단락에서 ‘무리해 그럴 거 없’다는 ‘나’의 어머니의 대화 재현에서 드러나듯이 이러한 친밀성의 모의는 실패로, 그리하여 친밀성의 불가능성으로서 ‘나’에게 이해된다. 따라서 끝내 모녀

간 친밀성의 토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나’의 두 전략과 방식은 완전한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이러한 ‘나’와 ‘나’의 어머니 사이의 친밀성은 비단 불가능한 친밀성이라는 선언적 귀결로 향하지 않고, 이러한 두 번의 좌절된 친밀성 구성의 방식과 궤를 달리하여 모녀 간 친밀성과 모녀 관계를 조형하는 문화적 마스터플롯에 대한 상이한 친밀성 구성의 가능성 및 친밀성의 조건으로서의 여성 주체(들) 사이의 관계맺음 방식의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이미 열다섯 살의 아이를 가진 중년의 기혼 여성이 된 서술자 ‘나’가 다시금 그 스무살 무렵의 자신과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둘러싼 시간들을 불러내 서사적 현재로 회고하고 재의미화함과 동시에 새롭게 이해하는 과정에서 발현된다.

할아버지는 어린 엄마를 동료 교사들 앞에 세워놓고 글씨를 읽게 시켰다. “영특한 아이네요!” 선생님들이 엄마를 보며 놀라운 듯 말했다. 유학을 가고 싶었으나 포기해야 했고, 사랑했던 여교사 대신 지적인 대화를 조금도 주고받을 수 없는 여자와 하는 수 없이 평생을 살게 된 할아버지에게 엄마는 유일한 사랑거리였다. “우리 딸은 사내아이의 머리를 지녔어!” 할아버지는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말했다. 딸아이에게 사내아이의 머리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었으므로.(『친애하고, 친애하는』, 71쪽)

하지만 할머니는 톨스토이나 토마스 만을 몰랐고, 클라크 게이블이나 줄리 앤드류스를 몰랐다. 북서쪽 항구도시의 일류 여자고등학교에 다니던 엄마의 친구들 중에는 여고를 나오거나 전문학교를 나왔던 세련된 신여성들을 엄마로 둔 경우도 꽤 있었다. 엄마는 그런 친구들이 아마도 부러웠을 것이다. 엄마와 딸 사이의 공모, 딸에게 한자를 가르쳐주고,

에이즈와 위즈위스의 시를 읊어주는 엄마. 그렇지만 엄마의 엄마는 그러는 대신 혼자 술을 마시며 작부처럼 노래를 불렀다. 그런 할머니의 모습에 화가 난 할아버지가 술상을 엮고, 할머니를 때릴 때, 엄마가 미웠던 것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였는데, 그 사실을 생각하면 사춘기 때의 엄마는 화가 났고, 커서는 슬펐다. (『친애하고, 친애하는』, 72~73쪽)

‘나’는 ‘나’와 ‘나의 어머니’ 사이의 모녀 간 친밀성을 구축하기 위하여 ‘나’가 토대로 삼았고 또한 그렇기에 실패했던 전략 대신, ‘나의 어머니’와 ‘나의 할머니’ 사이의 모녀 관계를 들여다본다. 그리고 『친애하고, 친애하는』의 서사적 말미에서 ‘나’는 “그때 내가 네 엄마한테, 죽으려면 차라리 현옥이 네가 죽었어야 한다고 했어.” (『친애하고, 친애하는』, 125쪽) 라고 아들의 죽음 대신 딸의 죽음을 바라는 말을 했음을 고백하는 할머니의 언술을 통하여, 중층적 모녀 관계에 있어서 ‘친애’의 의미와 동일시의 불가능성에 대하여 깨닫는다. 이는 ‘나’의 이해관계 속에서 조망되는 ‘나’의 할머니와 ‘나’의 어머니 사이가 아니라, 서사적 말미에 이르러서야 겨우 호명되는 ‘현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성이 가지고 있는 모녀 서사를 따라가 봄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소설에서 결국 동일한 가부장제에 위치하는 이성애자 여성의 주체 위치와 생애주기는, 모녀 간 친밀성의 지대에서 동일시의 구도로 연역되는 것에 끝내 ‘실패’하는 서사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동일시적 투사와 동일성의 사회적 규약으로부터 오는 모녀 간 친밀성의 구성 대신에 이 소설에서 의미화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상이한 모녀 관계의 현실태들과 함께, 딸로서의 ‘나’의 위치에서 ‘어머니’로서의 한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마치 어떠한

친족성의 이해관계도 없는 독립적 존재이자 개체적 존재로서 응시해봄으로써 구성하게 되는 친밀성의 지대다. 그런 의미에서 ‘친애’라는 매우 번역하기 어려운 이 표현은 가까움과 친밀감, 친족성과 애착, 동일시와 거리두기 등 모녀 관계의 특수성이 지시하는 이 모든 젠더화된 삶을 가로지르는 정서적 동력들로부터 여성 간 관계맺음의 대안적 정서를 제안하는 것으로서도 읽힐 수 있다.

물론 그것은 나와 엄마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 연극이 나의 마음을 당긴 이유는 그것이 엄마와 할머니의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 후로 여러 연극과 소설, 영화를 통해서 수많은 어머니와 딸의 서사를 만났다. 그때마다 나는 이야기에 빠져들었는데, 그 경험들이 내가 엄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어쩌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대부분의 딸들의 서사는 교육받지 못했고 가난한 어머니를 극복하거나 혹은 대신해 자신의 길을 걸어가 마침내 다른 세계로 진입한 여자들의 이야기다. 그들은 대체로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애증,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디에서도 우리 엄마와 같은 유형의 엄마를 본 적이 없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오랫동안 그것들이 나와 무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왔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또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야기들이 나의 이야기이고 나와 엄마의 이야기 역시 수많은 형태의 모녀 서사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도 한다.(『친애하고, 친애하는』, 116~117쪽, 인용자 밑줄)

즉 이러한 동일시의 불가능성과 친밀성의 불가능 지대 속에서 『친애하고, 친애하는』은 아주 좁은 길이자 동시에 친족의 모계 서사를 원천적으로 구획하는 문화적 기대의 여러 판본들을 넘어서는 ‘친애’의 가능성을 친밀성의 한 구현태로서 제공한다. 이러한 서사적 귀결을 통하여 이

소설은 한국여성소설사에서 모녀 관계를 형상화하는 술한 서사적 사례들에서 매우 독특한 차이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친밀성의 플롯들에 내재해있는 ‘여성’과 ‘모성’을 둘러싼 문화적 판본들의 젠더 정치적 면모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여성 주체의 동일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친밀성의 역학과 계쟁의 지점을 형상화함으로써 다른 모계 서사와 친족 내 여성 간 관계성의 다층적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IV. 결론을 대신하여

본고 전체는 여성 간 친밀성의 주제론에서 특히 빈번하게 나타나는 모녀 관계의 서사화 양상에 주목하여, 모녀 간 친밀성의 서사적 형상화 방식에 나타난 구성적 차이와 의미를 논급해보고자 한 시도다. 특히 본고는 이를 모녀 관계 및 모녀 간 친밀성에 대한 서사적 계열체들 중에서 오정희의 『목련초』와 백수린의 『친애하고, 친애하는』의 두 병치되는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고 전체에서 모녀 간 친밀성 서사의 젠더 정치적 면모는 다음의 두 가지 논향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서사화된 모녀 관계는 여성 주체와 여성 간 관계성을 상상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동일시의 구도와 이에 수반하는 ‘여성’과 ‘모성’을 둘러싼 문화적 기대의 담론적 저변을 드러내며, 모녀 간 친밀성을 구획하는 사회적 규약의 문화적 마스터플롯으로서 형상화된다. 오정희와 백수린의 두 사례 모두에서 이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또한 동시에 이러한 사회적 규약은 모녀 간 친밀성의 판본과 그에 기반한 전략의 불가능성을 모의하는 백수린의 서사적 사례를 통하여 더 나아가, 친족 관계와 등질화된 여성 주체의 위치성에 대한 이격의 지점들과 함께 ‘이미’ 젠더화되어 있는 친밀성 플롯들의 배치를 정치적 계쟁에 부친

다. ‘친애’는 친족과 친밀감 사이의 미끄러짐 속에서 친밀성의 다른 구성 가능성을 보충하는 정서적 대안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여성 간 관계맺음의 방식에 투입하는 젠더 정치의 면모를 비판적으로 가시화하는 서사적 양상을 통해 환기된다.

여성 서사에서 여성 간 친밀성은 주로 대안적 친밀성의 요구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안적 친밀성의 요구는 비단 기존의 관계성에 대한 대항 담론이자 기존의 관계 역학에서 발생하는 친밀성의 규약들로부터 벗어난 외부의 초평면에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도 익숙하게 ‘승인’하고 ‘요구’하고 ‘재반복’하는 친밀성의 형식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녀 관계의 복합성이 계속적으로 젠더 정치의 담론 장으로 호명되고 반복적으로 되돌아오는 화두가 되는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또한 바로 여기의 내부를 문제시하는 상상력과 다양한 친밀성의 역학들에 대한 문학적 상상력과 비평적 개입이 필요한 까닭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친밀성의 다른 가능성과 친밀성의 요구 및 친밀성의 불가능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계쟁의 정치들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 협상될 수 있으며, 질문 속에서 열릴 것이다.²⁴⁾

24) 이에 더하여, 「목련초」를 포함하여 「별사」, 「옛우물」 등 오정희의 소설적 계열체들에 나타나는 모녀 관계와 모녀 간 친밀성의 서사들을 젠더 정치의 논점에서 보다 정치하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딸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젠더화된 세대진이적 트라우마의 양상과 우울증적 젠더의 구성에 대한 페미니스트 정신분석학적인 접근(이리가라이, 클라인, 초도로우, 버틀러의 이론들을 경유하되 라카프라, 허쉬, 제이콥스 등의 탈-원형적 이론화 경향에 대한 시각을 통하여)이 필요해보인다. 또한 본고가 논의한 두 서사적 사례에서 모녀 관계가 이성애-기혼-여성들에게 한정 및 과잉대표화되었다는 원천적인 지점 또한 염두에 두고 모녀 간 친밀성의 서사적 사례들에서 다양한 여성 주체의 위치성으로부터 빚어지는 친밀성의 구성 양상을 보다 확장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백수린, 『친애하고, 친애하는』, 현대문학, 2019.
오정희, 『불의 강』, 문학과지성사, 2017.

2. 논문 및 단행본

- 김혜경 외, 『가족과 친밀성의 사회학』, 다산출판사, 2014.
소영현 외, 『문학은 위험하다』, 민음사, 2019.
심진경, 『여성과 문학의 탄생』, 자음과모음, 2015.
최재남 외, 『한국어문학 여성주제어 사전1: 인간 관계』, 보고사, 2013.
Abbott, H. Porter, 우찬제·이소연·박상익·공성수 옮김, 『서사학 강의』, 문학과 지성사, 2010.
Bion, Wilfred, 홍준기 옮김, 『제2의 사고』, 눈출판그룹, 2018.
Butler, Judith, 강경덕·김세서리아 옮김, 『권력의 정신적 삶』, 그린비, 2019.
Chodorow, Nancy, 김민예숙·강문순 옮김, 『모성의 재생산』,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8.
Saito, Tamaki, 김재원 옮김, 『엄마는 딸의 인생을 지배한다』, 꿈꾼문고, 2017.
Wood, Julia, 한희정 옮김, 『젠더에 갇힌 삶』,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김영옥, 「90년대 한국 ‘여성문학’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여성 작가 소설에 대한 담론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9, 상허학회, 2002, 93~120쪽.
김은하 외, 「90년대 여성문학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여성과사회』 10, 한국여성연구소, 1995, 139~161쪽.
김지혜,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의 체화와 수행」, 『페미니즘 연구』 17(2), 한국여성연구소, 2017, 93~126쪽.

- 김혜영, 「오정희 소설의 성장 수사학」, 『현대소설연구』 27,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361~384쪽.
- 김혜원·이수경·백인혜·한혜성, 「모녀간의 세대 간 전이여부와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이화학술논집』 7,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학생회, 2011, 21~52쪽.
- 엄지희, 「현대 여성작가 자매소설 연구」, 『상허학보』 48, 상허학회, 2016, 393~418쪽.
- 이정희,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탈영토화 전략」, 『여성문학연구』 4, 한국여성문학학회, 2000, 291~313쪽.
- 최영민, 「투사적 동일시—심리적 의미와 치료적 활용」, 『정신분석』 20(2), 한국정신분석학회, 2009, 125~136쪽.
- Jacobs, Amber, “The Potential of Theory: Melanie Klein, Luce Irigaray, and the Mother–Daughter Relationship”, *Hypatia: A Journal of Feminist Philosophy*, 22(3), 2007, pp.175~193.
- LaFollette, Hugh, “Kinship and Intimacy”, *Etikk I Praxis—Nordic Journal of Applied Ethics*, 11(1), Trondheim, 2017, pp.33~40.

<Abstract>

Gender Politics of Mother–Daughter Kinship’s Narrative

– Focusing on the Cases of Oh Jeong–hee and Baek Su–rin

Jeong, Mi–seon

This paper focuses on the very problematic type of ‘mother–daughter relationship’ in terms of ‘female–female kinship’s narrative’. Psychologic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gender provide insights into the mother–daughter relationship through studies of gendered lives and identification dynamics—and mechanisms and differentiation patterns such as incorporation, projection, introjection, sympathy, empathy, etc—. This paper analyzes two narrative cases of Oh Jeong–hee and Baek Su–rin through the perspective of ‘kinship’s narrative’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mother–daughter relationship. The key point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differences in gender and narrative aspects that can be observed in these two case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pattern of mother–daughter kinship is expressed in the ‘imaginary identification’ composition between mother and daughter. This pathological identification, foregrounded in first novels, is described as a master–plot of the discourse underlying the cultural expectations of the gendered female subject. On the other hand, second novel shows the ending that the strategy of making the kinship of

mother-daughter relations based on these plots will eventually fail, and also presents a new form of kinship that does not converge or reduce with the dynamics of identification. Through this the plots of kinship between mothers and daughters are in political litige. This paper reemphasizes gender politics and contemporary aspects of the mother-daughter relationship, and asks how 'female-female kinship' can be reimagined. And a search for the spatial possibilities of alternative intimacy is called for.

Key words : Mother-daughter relationship, Intimacy, Kinship, Gender politics, Sociological status of females, Litige, Female narrative, Oh Jeong-hee, Baek Su-rin

이 논문은 2019년 7월 12일에 접수되어 2019년 8월 5일에 심사 완료되고 2019년 8월 12일에 게재 확정되었음.